

꽃으로 부활한 '마법의 성·9층탑' 눈길끄는 함평국향대전 이색작품

오늘 개막, 17일간 엑스포공원 일원서...국화 피크닉 등 다양한 행사

가을 축제의 대명사 격인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다채롭고 풍성한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함평군은 '함평 국화의 겨울이야기'라는 주제로 18일부터 11월3일까지 17일 동안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막식은 18일 오전 9시 테이프 컷팅으로 진행하며, 개막식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주무대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개막 축하공연으로 함평 국향대전을 주제로 하는 무용극과 미스터 트롯으로 유명한 김희재, 가수 세컨드 등의 공연을 선보인다.

국향대전 메인 광장에는 미리 보는 크리스마스라는 느낌으로, 중앙광장에 대형 종소리 게이트와 크리스마스 트리 국화조형물 등 성탄 풍경을 연출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마법의 성, 9층 꽃탑, 국화 터널 등 색다른 국화 작품들을 연출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함평군이 자체 개발해 국화 품종으로 제작한 국화분재 작품과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 출품작 등 115점을 전시한다. 국화분재 판매장에 운영해 판매 수익금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으로 기탁한다.

함평의 가을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습지공원은 국화꽃 캘리그래피, 양말목 키팅 만들기, 레진 그림틀 만들기, 국화 피크닉, 가족자전거 타기, 명

상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국향군민 한마당, DJ 뮤직박스, 국향 플래시몹, 청소년 프린지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마련했다.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수생식물관 등 6개의 전시관에서는 각각의 테마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국향대전은 함평에서 직접 생산한 저렴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과 함께 다양한 체험, 문화예술 등 즐길거리가 가득하다"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미리 만끽할 수 있는 국향대전 축제장으로 오셔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18일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막한다. 함평 엑스포공원에 조성된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국화조형물 9층 꽃탑.

장성 필암서원서 전통공연예술제...창극 '선비길' 공연

오늘부터 이틀간...콘서트·연주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에서 18~19일 '제11회 전통공연예술제'가 열린다.

'2024년 전라남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공모사업' 선정으로 마련된 이번 예술제에서 선보일 공연은 조선시대 유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창극 작품 '선비길'이다.

필암서원이 배향하고 있는 하서 김인후 선생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인종 임금의 스승

이다. 인종과 사제, 군신 관계를 넘어서서 깊은 우정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종이 하서 선생에게 직접 하사한 '목죽도'가 유명하다.

창극은 판소리에 극적인 요소를 더한 전통극으로, 공연은 장성지역 예술단체 사단법인 청강창극단이 맡았다. 극작품 속 배경이 되는 실제 장소인 필암서원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실경' 창극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예술제는 18일 창극, 19일 콘서트로 나누어 진행된다. 18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공연은 전통

악기 연주와 김은숙 가야금 병창의 무대로 막을 연다. 청강창극단과 '100인 합창단'이 청정림, 학연루 마당 등을 무대로 '선비길' 공연을 선보인다.

19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2부는 창극 '선비길' 갈라 콘서트와 전통악기 연주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최초로 열리는 전통공연예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e-브라운 백 세미나'

최원용 교수 '미래 에너지기술' 강의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실현 연구회 시즌 II' (대표 의원 김철민)가 지난 16일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5차 e-브라운 백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연구회 참여의원인 최문환 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원용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 교수가 '지구환경과 미래 에너지 기술'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이 날 세미나에는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 중임에도 홍영섭, 최정기 의원 등 연구회 참여의원들과 한상철 연구처장을 비롯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및 나주시의회와 시청 직원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최원용 교수는 강의에서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 중 ▲에너지 ▲물 ▲식량 ▲환경 분야의 문제 해결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분야다"라며 "학문분야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이러한 네 가지 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앞으로 인류 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이어 "우리가 당면한 환경-에너지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인간이 지구와 환경을 대하는 사고방식/행동양식/사회적·법적 규범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6차 브라운 백 세미나는 오는 11월 14일 인공태양을 주제로 KENTECH 김기만 교수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 창평면 25~26일 이틀간 전통음식축제

담양 창평면에서 오는 25~26일 '2024 제11회 창평 전통음식축제'가 열린다.

'맛과 전통의 멋 그리고 삶의 여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알찬 축제로 구성했다.

코로나로 인해 6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창평면은 행사장 조성을 위한 경관과 기반 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평향당 일원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오전 11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트로트 신동 김성록을 비롯해 각종 축하 공연이 열리며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음식 경연대회 등의 마을 잔치 한마당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판매 공간을 운영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조성했다.

또 보물창고와 행운권 추첨, 대한민국식품인의 음식 시연 행사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해 행사장을 채운다.

박종봉 창평면 축제추진위원장은 "전통과 느낌의 미학이 있는 창평면의 매력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축제를 구성했다"라며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담양군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군도서관 부모 독서교육 '책으로 크는 아이' 30명 모집

강진군도서관이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독서교육 방법을 소개, 가정에서도 책 읽기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모 독서교육 프로그램 '책으로 크는 아이'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총 3회 진행된다.

취학 전 어린이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 30명을 16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책으로 크는 아이' 프로그램은 차성령 교사(목포 서현초), 김형에 독립서점 오늘의 페이지 대표, 임정자 동화작가(2024년 강진군도서관 상주작가) 등 독서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강사들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독서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도서관(061-430-3832)으로 문의하거나 강진군도서관 누리집(<https://www.gjlib.go.kr/>)을 참고하면 된다./강진=남철희 기자 chou@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